

##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회회의록 (2020학년도 제7차)

회의소집통보일자		2020. 07. 20.	
이사 정수	7명	재적 이사	7명

1. 일시 : 2020년 7월 30일(목요일) 14시~18시30분
2. 장소 : 경기 파주시 탄현면 응지로 144번길 73 응지세무대학교 신관 108호
3. 참석이사(6명) : 이사 이종원, 박혜경, 신영준, 이정표, 이창현, 이정석
4. 불참이사(1명) : 이사 사공윤
5. 안건 : 1. 학교법인응지학원 수당 지급규정 제정에 관한 건  
2. 학교법인 및 응지세무대학의 주요 현안 공유 및 구성원 의견 청취  
3. 기타 논의사항
6. 회의내용
 

**이사장 이종원** : 재적임시이사 7명 중 6명이 참석하였으므로 2020학년도 제7차(임시이사회 제2차) 이사회 회의의 개최를 선언하고 간사로 하여금 안건 상정을 요청하다.

**간사 홍영섭** : 첫 번째 안건으로 지난 2020년 7월 20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제정하기로 의결한 학교법인응지학원 수당지급규정(안)을 상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기를 요청하다.

**이사장 이종원** : 학교법인응지학원 수당지급규정(안)에 대해 이사들의 의견을 묻다.

**전전 원** : 본문 내용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고 말하고, 다만 시행일을 2020년 7월 20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건의하다.

**이사장 이종원** : 학교법인응지학원 수당지급규정은 시행일을 2020년 7월 30일자로 하되 2020년 7월 20일로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의결되었음을 말하고, 간사에게 두 번째 안건의 상정을 요청하다.

**간사 홍영섭** : 두 번째 안건은 학교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이미 메일로 배부한 예산집행 관련서류, 교직원현황, 교육과정운영현황, 대학조직과 이와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학교 보직자와의 질의·답변 및 응지세무대학교의 총장 및 대학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설립자 등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응지세무대학교의 각 처장과 총학생회장, 대학총장, 교수협의회 회장, 대학의 설립자가 학교 정상화를 위한 각자의 의견 진술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사장 이종원 : 별도 보고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먼저 부총장을 비롯한 학교의 처장들에게 사전에 배포한 자료를 중심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한다.

전 원 : 만장일치로 찬성하다.

간사 홍영섭 : 응지세무대학교 박○ 부총장, 이○ 교무처장, 남○ 학생처장, 송○ 입학홍보처장, 이○ 전 사무처장, 진○ 대외협력처 처장 대행을 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다.

전 원 : 박○ 부총장, 이○ 교무처장, 남○ 학생처장, 송○ 입학홍보처장, 이○ 전 사무처장, 진○ 대외협력처장 대행에게 학교규정, 학사운영, 교비회계결산관련 내용, 응지생활관주식회사 운영 문제, 수익용기본재산 현황과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주고받은 후, 학교규정과 법인정관 등 법인규정의 불일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관련 규정안을 다음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신입생 충원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활동 등을 당부하고 관련 대책을 다음 회기에 보고하며, 수익용기본재산의 재산권 확보 및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그 결과 또한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다. 아울러 수익용기본재산의 임대계약서 등 관련 자료와 생활관관리주식회사의 농협과의 계약서와 결산서 등 자료를 추가로 이사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다.

간사 홍영섭 : 응지세무대학교 최○ 총장을 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다.

최○ 총장 : 학교 정상화에 대한 방안과 계획 등에 대하여 말하다(회의자료 대학정상화 계획 참조)

전 원 : 학교운영의 책임자로서 화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부탁하고 부당

한 외압에 단호하게 대처하여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학교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하다.

간사 홍영섭 : 응지세무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다.

총학생회장 : 총학생회의 입장문을 전달하다(회의자료 총학생회 입장문 참조)

간사 홍영섭 : 교수협의회 회장과 교수대표 2인을 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다.

교수협의회 대표 : 학교의 부실운영 사례에 대하여 말하다.

전 원 :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하고, 배부 자료를 살펴보겠다고 말하다.

간사 홍영섭 : 송○ 설립자와 박○ 전 총장을 회의장에 들어오게 하다.

송○ 설립자 : 교육부의 부당한 처분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되었다고 주장하고 학교를 위한 정상화 방안으로 회계·세무 특성화 대학으로서 학부 중심 회계·세무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다.

전 원 : 학교가 정상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다.

이사장 이종원 : 장시간 학교의 업무보고를 받고 각 구성원의 의견을 듣느라고 고생하셨다고 말하고, 전원 동의로 다음 이사회는 2020년 8월 24일 14시에 응지세무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이사회 회의를 선언하다(18시30분).

2020. 7. 30. 18시 40분

위 사실을 확인함.

학교법인 응지학원

이사장 이 종 원



이 사 박 혜 경 *백승민*

" 신 영 준 *신영준*

" 이 정 표 *이정표*

" 이 창 현 *이창현*

" 이 정 석 *이정석*

# 이사회 회의자료

(2020년 7월 30일)

## 안 건

1. 이사회 등 회의 참석수당 지급규정
2. 응지세무대학 및 법인 현안보고 및 의견 청취
3. 기타 논의사항

학교법인응지학원

# 학교법인웅지학원 수당 지급규정

제정 2020.07.30

제1조(목적) 학교법인웅지학원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 및 행사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참석자 등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학교법인웅지학원에서 개최하는 이사회, 위원회, 자문회의, 행사 및 사업수행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이사·감사 및 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수당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및 감사
2. 각종 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외부 위원
3. 지외 채용시 참석한 외부의 면접위원
4. 기타 이사장이 수당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4조(지급액 및 지급기준) ① 수당 지급액 및 지급기준은 별표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학교법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참석하는 원거리 출장일 경우 증빙을 제출받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① 수당은 수당지급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기타)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0.07.30.>

이 규정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표]

수당지급기준(제4조 관련)

구분	지급대상	수당액	비고
이사회 참석수당	이사 및 감사	30만원	
위원회, 자문회의, 면접 등 참석수당	이사 및 감사, 외부위원	5만원~30만원	사안별로 이사가장이 정함

## 대학 정상화 계획(20200730)

웅지세무대학교 총장을 만나달라는 제안을 받고, 여러 채널을 통해 대학 상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체로 설립자와 일부 교수들과의 갈등만 해소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와 보니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정은 물론, 행정력까지 붕괴직전 상태였습니다.

건물 개보수, 서버 확충 등으로 돈 들어갈 때가 많고, 초창기에 비해 반 토막 난 인력, 처장 급 아래 직원은 1-2명뿐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앞친 데 앞친 격으로 상황이 더 악화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장 입장에서 '정상화'는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일상화'를 깨고,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학생은 목표한 바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교수는 학생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지도하고,

직원은 학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총장 이하 처장, 간부급들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정상화 계획은,

첫째, 학교 행정의 정상화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내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상호 불신이 팽배합니다.

다른 부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학교 전체가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총장으로 부임한 이후 첫 번째 한 것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반 처장급회의를 정례화한 것입니다.

회의 전주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처 별로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을 받고,

회의 당일에는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총장 부임 이후에 시작 됐다는 믿음을 드립니다.

특히 간단히 작성한 회의록과 처 별 보고 자료를 전  
교직원들에게 대의비를 전제로 송부합니다.  
또한 모든 일을 적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서로 간에 소통하고 업무를 투명하게 하여 불신의 벽을  
허물자는 취지입니다.

둘째, 행정인력 확충입니다.

웅지세무대학교는 행정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알아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만 만든다는 편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은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폐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간 간부급이 부재하며, 시수만 있고 부사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담당자가 아프거나 이직하면 일이 멈추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선 인력 재배치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지만 당장 직원을 뽑을 수 없는 여건이어서 최근에  
부분적 인력 재배치를 했습니다.

2학기 상황을 봐서 인력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7월 30일 현재 재직 89>

○교원은 검임(11명) 포함 53명

- 회계세무정보학부 19(조3 부16) / 경영세무정보학부 21(조6 부15)

\* 교원 6명 사퇴 7월말, 8월말. 2인은 휴직교수.

- 시간강사 1명

○ 직원 35명

- 방호위생 10명(위생 7, 방호3), 계약직 10명, 직원 15인, 3급 4 처장급.

5급 2, 6급 2, 7급 5, 9급 2

셋째, 본격적인 정상화를 위해 각종 위원회를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우선 보수조정심의위원회입니다.

그동안 교원들이 보수에 관해 불평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책임시수(현재 12시간), 폐강기준(현 10명, 20명)으로 인한  
다툼이 많고 민사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특히 한 과목 폐강 시 급여가 20% 삭감되어, 심지어 월  
급여로 20~30만원 밖에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24일  
보수조정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주요 기준인 책임시수를 12시간에서 9시간으로, 폐강 기준은 7-10인, 상한 기준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한 과목 폐강 시 급여 삭감 없이 다음 학기에 보완도록하고 급여삭감 비율도 하향 조정할 것입니다.

**둘째, 규정심의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정관을 포함 현 상황에 맞지 않았거나, 학칙이 개정되었으나 세부 규정 등은 그대로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규정심의위원회 운영(7.24일 출범)으로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특히 ‘**학부제**’에서 ‘**학과제**’로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원업무평가위원회 업적평가 기준을 마련할** 것입니다.

교원들은 현재의 교원업무평가 기준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의 평가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려 자료 제출도 거부하는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소급 적용의 문제점 등도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교원업무평가위원회 업적평가 기준을 올해 내에 마련하여 2021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상벌을 확실시 하고 연봉 책정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밖에 학생들의 취업문제 해결, 대외협력 업무 강화도 **학교 발전기금 유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은 총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지금과 같은 갈등이 지속되면 **학교 전반은 병들어** 가고 더 이상 회복 볼능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화의 길은 결국 학생들의 면학 열기로 활기 넘치는 **옹지세무대학교**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학교가 안정되어야** 가능하고, **대학 구성원간의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뢰회복을 위해 총장으로서 혼신을 다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대학 정상화의 길에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이사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성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1년 10월 10일 ~ 2011년 10월 10일 ~ 2011년 10월 10일 ~

##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제16대 총학생회입니다.

먼저, 저희 웅지세무대학교 임시이사로 오신 것에 환영의 인사 올리며,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한 최적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의 문제점과 임시이사님께 바라는 점을 정리하여 올려드립니다.

### I. 설립자의 개입으로 인해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과정

본 학교는 회계사, 세무사, 세무공무원, 감정평가사, 취업 등 전문자격증 취득에 특성화된 대학입니다. 필수과목은 회계학 세법으로 이루어지고, 교양과목은 각 시험에 적합한 선택과목(경제학, 재정학, 각종 법률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설립자가 강제적으로 구성한 강의와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본인이 원하는 시험의 필요 이상으로 필수과목을 듣게 되고 이로 인해 폐강되는 교양과목들이 많아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는 데에 있어 시간낭비를 하게 되며 교수들의 수업권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교육과정은 설립자가 교수협의회 교수들이 입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변화시킨 학부 별 전공과정이 아닌 이전처럼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학과제로 전공이 세분화되어 학교 설립목적에 맞게 학생들의 전공과 과목선택권, 교수들의 수업권을 보장하여 구성되어야 합니다.

### II. 학교건물 및 생활관 시설 노후화

현재 학교건물 및 생활관의 시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여름엔 생활관과 강의실에 빗물이 새고 겨울엔 온수마저 간헐적으로 작동되지 않고 새시와 도배는 부실하여 벌레가 들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이와 관련하여 학생회에서도 몇 년간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매년 재정이 부족하다는 말과 함께 간신히 유지할 수 있으나, 보수는 힘들다는 말만 해오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점점 생활관에 거주하지 않고, 학교 위치로 인하여 등하교에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터무니 없는 행정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학교법인과 다르게 설립자가 대표인 생활관관리주식회사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활관비는 생활관관리주식회사에 납부되는데 납부된 생활관비는 다른 곳에서 가져가고 생활관의 유지 보수는 학교법인의 교비로 사용되니 학교에서는 재정이 부족하다는 답변 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한시라도 빠르게 정비 및 보수하여 생활관에 거주하고 싶어지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해야 학교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서버 등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비대면 수업인 상황에서 모든 교수들과 학생들을 감당할 수 있는 서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시스템조차 너무 오래되어 학생 뿐 아니라 교수들도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최신 서

버 구축으로 비대면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III. 학교와 학생들 사이의 소통 부족

현재 학교와 학생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전화문의 혹은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학생회 자체 익명 건의함과 SNS만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문의의 경우 교직원 부족으로 받지 않는다는 말이 들려오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학생회에서도 건의를 받아 학교에 요청하여도 항상 확답을 줄 수 없다는 답변 혹은 모른척하라는 답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각 학부별로 공식 대화방이 없어 공지나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는 교무행정을 강화시켜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IV. 학생복지와 관련된 재정지원 부족

현재 학교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등록되어 장학재단에서 지급되어야 할 국가장학금이 학교 자체에서 지급되며 이로 인해 성적장학금은 학업장려장학금으로 대체되어 각종 시험 1차 합격생들에게만 매우 최소한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투명하지 않아 학생들 복지에 관련하여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학교 식당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아침과 저녁에는 운영하지 않아, 생활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매 끼니 아침과 저녁을 강제로 외부식당에 나가서 혹은 편의점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직원을 위한 식당인지 학생을 위한 식당인지 의무가 들 정도입니다. 학생 복지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식당 운영이 수익성만 따지고 있습니다. 또, 입체에서도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아 학교식당 음식과 시설, 장비 등의 품질이 매우 낮으며 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학생회에서 학교에 몇 번 건의를 했으나, 학교에서는 실 이용자는 학생이니 학생회에서 식단표를 받아 학생들에게 공지해주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식단으로만 해달라고 요청해라 등의 터무니없는 답변만 하였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식사가 제공되지않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악순환으로만 돌아간다면 학교에는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 V. 설립자의 특수관계인으로 이루어진 교직원 및 교수들

설립자의 개인적인 채무를 교비에서 횡령해감에 더불어 그의 특수관계인과 지인으로 이루어진 학교 교직원들과 교수들이 있다는 것은 학생들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설립자의 두 아들들은 본교 졸업생이며 설립자 아들들의 친구들도 많고 그들이 재학생들에게 총학생회 선거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졸업생이 재학생 후배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으나, 그 졸업생이 설립자의 특수관계인이라면 말이 다릅니다. 이로 인해, 학교를 설립자와 그 측근들이 생각하는 대로만 운영하려 함에 있고, 또한 설립자의 처남인 학생처 교직원 000부장은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에

개입하여 학생들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압박이나 협박 등의 여러 행위를 하여 지금까지 학생들의 건설적인 의견이 묵살당했습니다. 또한 근로장학생들과 조교들에게 개인 사비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마냥 갑질을 해 왔습니다. 이는 민주적이지 못하고 명백한 범법행위나 다름없으며 학생들을 기만하는 사실입니다. 이들 직위에 대한 적절한 처분만이 학교를 정상화하는데 한걸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회는 언제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들어오는 압박이나 협박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음과 동시에 두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즉발경영으로 인한 권력남용을 이사장님께서 바로 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생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바라고 바라던 임시이사를 비롯한 존경하는 이사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학교는 학생, 교수, 교직원 모두에게 교비가 투명하게 사용되고 운영되어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을 외치는 설립자가 횡령한 자금과 학교에 미친 막대한 영향력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환하는데 있어 피해자인 학생들은 현명하신 이사장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학교의 특성을 잃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은 본 학교의 회계 세무 특성화 대학이라는 홍보를 보고 전문직을 향한 큰 꿈을 가지고 입학하였으며, 이를 일반 전문대학교처럼 변화시킨다면 학생들이 입학한 명분과 목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학교의 정상화는 바라던 부부이지만 일반 전문대처럼 변화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학교에 있는 설립자의 특수관계인 ~~및~~ ~~측~~ ~~구~~ ~~들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적절한 처분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이기~~ ~~심~~ ~~으로~~ ~~인해~~ 학생들과 교수들의 건설적인 의견은 항상 ~~묵살~~ ~~당~~ ~~해~~ ~~왔~~ ~~고~~, 그들의 생각과는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압박과 협박 등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교를 '말해도 무시당하는 학교'로 인식하고, 의견을 비롯한 민원조차 내기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사장님께 사실대로 입장문을 쓰는 저희 학생회 조차도 그들의 어떤 보복이 다가올지 두렵습니다.** 그들을 반드시 직위에서 적절한 처분을 하시어 학생들과 교수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학교에 애로사항과 건설적인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학교의 전체적인 시설, 장비, 식당 등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학생들이 건의해 왔던 사항이지만 예산이 없다,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등의 답변으로만 무시당했던 사항들입니다. 이로 인해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재학생들마저 휴학, 자퇴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학교에 점점 학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훌륭하신 교수님 및 열정 넘치던 학생들은 폐교를 우려하며 외부학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진로를 위해 특성화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소리를 관심있게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학생회는 학생들의 소리를 듣고, 대표하여 말하는 학생자치기구입니다. 학생회는 언제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권력은 치우치면 안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는 교수협의회와 설립자 어느 편에 서지도 않고, 오로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올바른 소

리를 내려고 노력합니다. 학교는 분명하게 변화해야 하며, 우리 응지세무대학교가 민주주의에 한 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해 임시이사를 비롯한 이사장님의 현명하신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제16대 총학생회 일동